

홍명보호, 트리니다드토바고 5-0 완파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도전하는 홍명보호가 '킥틴' 손흥민(LAFC)과 '골잡이' 조규성(미트윌란)의 멀티골 등을 앞세워 최종 모의고사 1차전을 대승으로 마쳤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31일(한국 시간) 미국 유타주 프로보의 브리검영대 사우스필드에서 열린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평가전에서 5-0으로 크게 이겼다.

손흥민과 조규성이 나란히 2골씩을 책임졌고, 황희찬(울버햄튼)이 한 골을 보탤었다.

A매치 55, 56호골을 터트린 손흥민은 한국 남자 축구 선수 A매치 통산 최다 득점 1위인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58골)과의 격차를 2골로 좁혔다.

지난 3월 유럽 원정 평가전에서 2연패를 당했던 홍명보호는 지난해 가나전(1-0 승) 이후 3경기 만에 승전고를 울렸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 2차전을 고지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치르는 홍명보호는 비슷한 환경의 해발 1460m 솔트레이크시티에 사전캠프를 차리고 마지막 담금질해왔다.

홍명보호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 최종 모의고사를 치른다.

이날 트리니다드토바고와 첫 경기

손흥민 멀티골... 후반 조커 조규성도 멀티골
'고지대 실전' 모의고사 1차전서 공수 합격점



5월 31일(한국 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브리검영대(BYU) 사우스필드에서 열린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평가전을 소화하고 있는 손흥민.

를 벌인 뒤 6월 4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엘살바도르와 붙고 베이 스캠프가 마련되는 과달라하라로 이동한다.

그다음에는 평가전 없이 6월 12일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을 갖는다.

홍명보 감독은 이날 최전방에 손흥민을 중심으로 2선에 배준호(스토크 시티), 이동경(울산)을 배치했다.

스리백 전술을 가동한 가운데 중원에는 김진규(전북),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호흡을 맞췄다.

좌우 윙백은 '혼혈 태극전사' 엔스 카스트로프(빈헨글라트바흐)와 김문환(대전)이 맡고, 중앙 수비는 조유민(샤르자)과 이한범(미트윌란)과 K리거로 감각 발탁된 이기혁(강원)이 자리했다.

이기혁은 A매치 두 번째 경기를 풀타임 소화하며 홍명보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다.

골키퍼 장갑은 조현우(울산)가 썼다.

다만 조유민은 의료진에 얽혀 교체됐고, 배준호도 부상을 받으며 그라운드를 내려와 우려를 낳았다.

태극전사들은 월드컵 본선 상대국에 헌신을 주기 위해 평소와는 다른 등번호를 달고 경기에 나섰다.

손흥민은 7번 대신 13번을 달았고, 평소 13번을 달던 이태석이 7번을 가져갔다. 수비수 이기혁은 공격수가 사용하는 9번을 새기고 나왔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2위 트리니다드토바고와는 2004년 7월 14일 서울에서 한 차례 맞붙어 1-1로 비긴 바 있다. 이날 대승으로 상대 전적은 1승 1무로 앞섰다.

북중미 카리브 축구 연맹(CONCACAF) 회원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뉴스시스



박민지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최다승 타이 기록인 20승을 달성했다. 박민지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양평의 더스타휴 골프 앤 리조트(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최종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잡아내며 8언더파 64타를 쳤다. 최종 합계 10언더파 206타로 정상에 올랐다. /뉴스시스

전남체육회 '스포츠버스' 사업 운영

해남 산이서초등학교서 VR 체험부터 작은 운동회까지

올해 스포츠버스 공모사업에서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선정 실적을 거둔 전남체육회의 스포츠버스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남체육회는 지난달 28일 해남군 산이서초등학교에서 '스포츠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2026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남체육회는 전국 32개 운영기관 중 8개소가 선정되며 강원(10개소)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스포츠버스는 체육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체육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체험과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해남 산이서초등학교 학생과 병설유치원 원아, 교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스포츠버스 내부에서 다양한 스포츠 장비를 체험하고, 실

내체육관에서는 VR 스포츠 체험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어 열린 작은 운동회에서는 협동놀이와 체육활동이 어우러지며 큰 호응을 얻었다.

박현을 학생은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이였다"며 "다양한 체육활동을 직접 해볼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인화 교사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고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라 교육적 효과도 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남체육회는 무안 청계북초등학교와 해남 산이서초등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선정된 도내 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스포츠버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은 "단순한 체육 체험을 넘어 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스포츠를 통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체육복지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호 기자

여수 해상교량 달리며 섬에 희망 전한 '기부런' 성료...1천여 명 질주

남도~조발도 10km코스...참가비 50% 기부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여수 남도기부런'이 전국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섬 지역 기부와 숙박·

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상교량을 달리며 섬에 기부하는 공익형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으로 추진됐다. 전국에서 1천여 명의 러너와 관광객이 참가해 남도~조발도를 잇는 10km 해상교량 구간을 달렸다. 참가자들은 남해안 바다와 섬 풍경이 어우러진 이색 러닝을 즐겼다.

경찰·소방·해경 등 100여 명이 투입돼 전방 차량 통제와 비상 상황을 대비한 응급대응 체계를 유지했다.

참가비의 50%를 여수 남도와 개도·금오도 지역에 기부해 관광과 나눔을 결합한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에게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도 제공됐다.

행사 개최식에는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여수시 부시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트롯 가수 안성훈의 축하공연과 기부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행사 참가자 상당수는 여수 숙박시설과 주요 명소를 이용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참가한 한 러너는 "바다와 섬을 바라보며 해상교량 위를 달리는 경험이 인상적이었다"며 "가족과 함께 여행과 기부를 동시에 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다.

황기연 부지사는 "이번 기부런은 해상교량과 섬 자원을 활용한 전남형 체류 관광 콘텐츠이자, 관광과 나눔을 결합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섬 관광과 스포츠를 연계한 특화 콘텐츠를 확대해 다시 찾고 오래 머무는 전남 관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호 기자



전동승용카트 시스템을 도입 새롭게 인사 드립니다.

전남 장성 태청산 끝자락 15만평 부지의 9홀 골프장 !!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소나무 숲과 어우러진 그림 같은 코스 !!

건강한 삶의 질과 굿~샷의 만족감을 느낄수 있는 육군 상무대 체력단련장 입니다.

※ 평일에는 민간인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061-350-2560